

영광의 봄축제 유혹



축제기간 진행되는 조기신산제.



지난해 열린 영광찰보리문화축제 모습.

주렁주렁 굴비 입맛이 동하고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20~22일

‘어머니와 굴비이야기’ 주제
저갯거리 재연·요리 시연 등 다채
굴비 892마리 걸대 거는 이벤트도

‘곡우’ 때를 맞춰 풍년을 기원하며 알이 차고 살찐 조기를 바쳤던 옛 풍습을 기리는 영광의 대표적 축제 ‘곡우사리 영광굴비 축제’가 화려한 막을 연다.

영광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해의 풍년을 기원했던 ‘조기신산제’ 풍습을 살린 영광굴비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올해부터 ‘굴비축제’의 축제명을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로 바꾸기로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와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 2016년 ‘영광법성포 곡우사리 굴비축제’로 시작된 굴비축제는 행사일인 4월 20일을 ‘굴비먹는 날’로 지정하는 등 축제 성공에 주력했다.

군은 또 영광의 대표 특산품인 법성포 굴비의 명맥을 이어가는 대표 홍보행사로 굴비 판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광군과 군의회, 한빛원전 후원으로 3일간 치러질 축제는 ‘어머니와 굴비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굴비를 통해 일생을 헌신하고 가족을 부양해 온 어머니의 삶을 감성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굴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공연·전시성 축하행사를 지양하고 굴비 저갯거리 재연, 굴비요리 시연·시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여는 등 굴비로 시작해 굴비로 끝나는 굴비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굴비’가 명명된 지 892년을 맞은 4월 21일 축제 기념식에서는 지역 여성들이 892마리의 굴비를 엮어 걸



지난해 축제를 찾은 유치원 원생들이 굴비가 널려있는 걸대 앞에서 귀엽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곡우사리

‘곡우’는 우리나라 24절기 중 청명과 입하 사이에 있는 6번째 절기로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오며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을 알렸다. ‘사리’는 음력으로 매월 1일과 15일 무렵 두 차례씩 바닷물이 만조에 이르는 때를 말한다. 예로부터 곡우가 겹치는 사리 때에 잡히는 조기가 가장 기름지고 알이 가득 찬 최상품으로 여겼으며 고사리를 깔고 조기탕을 끓여 조상에게 바치는 조기 신산제를 지냈다.

대에 거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또 무료 시식과 굴비 직접 구워 먹기, 굴비 엮기 대회, 굴비 경매 등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또 행사기간 굴비 할인 판매장을 운영해 시종보다 싼

가격으로 굴비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굴비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굴비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최명규 굴비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영광 법성포 굴비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립하고 영광 법성포 굴비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해 청탁 금지법 등으로 급격하게 침체돼 가는 지역 상권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축제기간 가족과 함께 법성포를 방문해 저렴한 가격에 굴비도 구매하고 굴비 요리도 맛보며 칠산 바다와 금빛 장관을 이루는 유채꽃단지와 갈매기가 어우러진 법성포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기자 jyilee@kwangju.co.kr

찰랑찰랑 찰보리 마음이 동하네

찰보리문화축제 5월 5~6일

‘가보리, 해보리, 먹어보리’ 주제
보리피리 만들고 비빔밥 퍼포먼스
가족끼리 연인끼리 푸른 추억 만끽

영광의 매력은 맛에 그치지 않는다. 굴비의 맛에 빼졌던 관광객이라면 찰보리밭에도 마음이 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푸르디 푸른 영광 찰보리밭의 아름다운 풍광을 맞이할 수 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영광찰보리문화축제가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가보리, 해보리, 먹어보리’를 주

제로 군남면 지내들 옹기돌담공원에서 개최한다.

영광 찰보리문화축제는 우리나라 찰보리밭의 최대 재배단지인 ‘영광보리 산업특구’지정을 기념하고 영광 지역 농업생산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축제로 매년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고, 먹고,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대표적인 체험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역 특색을 살려 보리비빔밥 퍼포먼스 등 개막행사 8종목, 어린이 트로트 가요제, 품바 명인전 등 문화행사 15종목, 보리제료 생활음식 전시관 운영 등 전시행사 5종목, 찰보리밭 동물농장, 찰보리밭 장어 잡기 등 체험행사 18종목 등 총 48종목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색다른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리피리 만들기 등 각종 시연 프로그램과 보리밭의 질푸른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보리밭 미로길 걷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리음식 무료 시식회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축제장과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영광 칠산대교와 백수 해안도로, 불갑사 등 영광의 주요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숙박을 겸한 여행으로도 추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봄은 가족과 함께 영광의 다양한 음식과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아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kwangju.co.kr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피어나는 경관 농업!

제15회 고창 찰보리밭 축제

2018. 4. 21(토) ~ 5. 13(일)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광주일보
창사66주년

